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과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희숙* · 하정희**

초 록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368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적 자율성이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분노억압, 분노표출, 비행행동을 덜 하며 분노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자율성 상·중·하 수준에 따라 분노표출, 비행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정서적 자율성이 낮은 집단이거나 중간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분노표현을 보다 많이 하였으며, 정서적 자율성이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과 정서적 자율성 수준에 따라 분노억압 및 비행행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정서적 자율성, 분노표현방식, 비행행동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재학중, 제1저자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BK 계약교수, 교신저자

I. 서 론

최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및 정신 병리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의 정신병리 모델과 발달 모델간의 통합,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Cicchetti & Rogosch, 2002). 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자율성에 대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요구에 관한 것이며, 이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및 정신 병리와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되어 왔다.

정서적 자율성 개념은 Blos(1979)로부터 발전한 개념으로 정신분석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로부터의 개별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Havinghurst(1948)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발달적 전환을 이루고, 성인으로서 건강한 심리, 사회적 기능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율성의 획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이고 성인기의 적응을 위해 중요한 청소년의 자율성 욕구가 반드시 긍정적인 성숙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다. 진정한 자율성의 발달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Steinberg와 Silverberg(1986)의 정서적 자율성 개념은 부모로부터의 건강하지 못한 형태의 분리를 포함하고 있음이 지적되면서 비판받아왔다(Ryan & Lynch, 1989).

따라서 정서적 자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일정수준까지의 정서적 자율성은 청소년의 적응적 발달을 촉진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자율성은 오히려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해 왔다(Fuhrman & Holmbeck, 1995; Garber & Little, 2001; Lamborn & Steinberg, 1993; Steinberg, 1986, 1987a, 1987b; Steinberg, Elmem, & Mounts, 1989).

선행연구를 통해 정서적 자율성은 다양한 부적응 행동 가운데 특히 '비행'과 관련지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황규숙, 1999). 즉,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청소년은 이와 같은 이유로 또래에 비해서 일탈 행동의 비율이 높으며, 학업 성취가 낮고, 심리·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일부 청소년들은 진정한 심리·사회적 성숙과는 다른 유사 성숙을 나타낼 수 있

는데, 성인들과 동일한 행동이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갖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행동들, 예를 들면 흡연, 음주, 늦은 귀가 등은 다양한 부적응적인 비행 행동들과 상당부분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청소년 비행은 성인의 범죄 행위와는 별도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와 더불어 비사회적인 행위인 불량 행위 및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황규숙, 1999). 현재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비행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비행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지나치게 높은 정서적 자율성은 비행 가운데 부 적응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청소년기에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얼마나 적절히 다루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은 달라진다(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따라서 정서적 자율성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McElhancy & Allen, 2001; Pettit, Laird, 2002;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려 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들로부터 이탈하고 분리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혹감이나 정서적 혼란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높은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분리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Ryan & Lynch,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율성의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는 시기지만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의 자율성에 대한 발달적 요구 자체가 청소년기의 부적응과 관련되기 보다는, 오히려 자율성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청소년의 부적응을 보다 잘 예측해 줄 수 있을 것이다(Juang, Lerner, Mckinney, & Eye,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부 적응적 양상의 하나인 비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분노표현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서 높은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의 방임과 통제 부족을 반영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설명한 바 있다. 부모의 적절 수준의 통제정도를 개념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자녀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부모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환경적 맥락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부모의 적절한 수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Baldwin, Baldwin & Cole, 1990; Barber & Olsen, 1997; Eccles, Early, Frasier, Belansky, & McCarthy, 1997; Gonzales, Cauce, Friedman, & Mason, 1996; Mason, Cauce, Gonzales, Hiraga, 1996; McElhaney & Allen, 2001). 부모의 적절한 통제를 개념화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부모의 허용간의 일치 정도로 개념화하는 것이다(Juang 1999). 여기서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부모의 통제는 적절한 통제일 수 있으나 청소년의 욕구가 무시된 통제는 과잉통제로 개념화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과잉통제나 허용정도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변보기, 강석기, 2002). 즉,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그들 간에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표현을 통해 공통의 이해를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권미경, 1993).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이 효율적일 때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인향, 1997),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절수준의 통제 또한 가능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와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때에 청소년들은 욕구불만 및 불만족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억압이나 분노표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분노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본적인 정서로써(임소영, 2000) Stearns(1972)는 이를 불안, 초조, 긴장, 분개 그리고 좌절 등의 복합적인 정서적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분노는 어떤 사건을 위협적, 체면의 손상 또는 불쾌한 것으로 지각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런 반응이다(Novaco, 1986). 그러나 Sharkin(1988)은 분노를 지적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써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운동적, 언어적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각 요소들 간의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의 내적인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독립적임을 천명하는 시기로(Steinberg, 1990) 부모에 대한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 청소년들의 분노는 특히 청소년 스스로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받았을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기 분노의 원인은 자기주장

의 방해와 기타활동의 방해로 구분되는데, 자기주장의 방해에서 오는 분노가 가장 많다(변보기, 강석기, 2002). 따라서 정서적 자율성과 분노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런 반응이지만 이러한 반응이 부적절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분노의 양상으로써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이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Biodeau, 1992; Gottlieb, 1999 재인용). 분노표출은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인다가나 욕하는 것, 말다툼이나 과격한 공격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분노억압은 화가 나 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화가 나면 오히려 말을 하지 않거나 사람을 피하고 속으로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분노의 적응적인 양상으로 대표되는 것이 '분노통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속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냉정을 유지하고 화를 나게 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Spielbger, Reheiser, & Sydman, 1995). 따라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한 분노나 충동과 같은 정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그들은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과 정서적 자율성 수준에 따라 분노표현 방식과 비행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정서적 자율성의 특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부모-자녀간의 관계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대한 결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정서적 자율성과 분노표현방식, 비행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수준과 정서적 자율성 수준에 따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K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387명이 대상이었다(중학교 3학년 199명, 고등학교 1. 2학년 171명; 남학생 156명, 여학생 212명).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17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370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수업장면에서 단체로 수업시간 중 일부를 하려 받아 실시하였고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척도

이 척도는 가족 내 의사소통 및 세 개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1982년 Olson와 Bames가 개발한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를 국내에서 김윤희(1989)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내용은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하위요인인 폐쇄형 의사소통 유형은 세대간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개의 항목은 5점 척도로서 각각 10-50점의 범위로 나타나며, 폐쇄형을 역산한 총점은 20-100점 범위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과 폐쇄형의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0으로 나타났다.

(2) 정서적 자율성 척도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Steinberg와 Silverberg(1986)의 정서적 자율성 척도(Emotional Autonomy Scale)를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2005)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0점~4점으로 채점되고, 총점의 범위는 0점~80점까지이다. 높은 점수일수록 부모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이다.

(3) 청소년 비행 척도

본 연구에서는 비행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준호(1990), 심영희(1987) 등에 의한 비행 척도(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의 25문항을 기초로, '사창가에 간 적이 있다'는 문항은 제외하고, '음란서적을 본 적이 있다'는 항목과 '음란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는 두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총 23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비행 척도(Adolescent Delinquency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없다', '한두 번 있다', '서너 번 있다', '대여섯 번 있다', '많다'의 빈도로 구분하고, '없다'는 0점으로, '많다'는 4점으로 하여 총점의 범위가 0점에서 92점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다.

(4) 분노표현척도

Spielberger와 그의 동료들(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ne, Jacob & Worden, 1985)이 개발한 STAXI(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에서 3가지 요인 중 하나인 '분노표현척도'를 김백영(1997)이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분노표현 척도는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통제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거의 전혀 아니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Likert척도이다.

분노억압(anger-in)은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는 .60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anger-out)은 어떤

환경에서 사람이나 대상에게 얼마나 자주 분노를 표현하는가를 재는 것으로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신뢰도 계수는(Gronbach' α)는 .71로 나타났다. 분노통제(anger control)는 개인이 분노표출을 조절하려고 하는 빈도수를 재는 것으로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신뢰도 계수(Gronbach' α)는 .79이다.

3. 분석

첫째, 정서적 자율성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과 분노표현방식, 비행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피어슨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정서적 자율성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비행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1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정서적 자율성 점수를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역시 1원 변량분석 및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과 정서적 자율성 수준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비행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과 정서적 자율성을 독립 변인으로,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정서적 자율성, 분노표현방식, 비행행동과의 관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과 정서적 자율성, 분노표현방식, 비행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서적 자율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통제, 비행행동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구하여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정서적 자율성,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통제, 비행행동 간의 상관계수(r)

변 인	1	2	3	4	5	6
1 부모-자녀의사소통	1.0					
2. 정서적 자율성	-.71.***	1.0				
3. 분노억압	-.14.**	.15*	1.0			
4. 분노표출	-.23	.23***	.37***	1.0		
5. 분노통제	.10	.00	.40***	.15**	1.0	
6. 비행행동	-.22***	.26***	.09	.36***	.08	1.0

*p< .05, **p< .01, ***p< .001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은 정서적 자율성($r=-.71$, $p<.001$), 분노억압($r=-.14$, $p<.01$), 비행행동($r=-.22$,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정서적 자율성은 분노억압($r=.15$, $p<.05$) 분노표출($r=.23$, $p<.001$), 비행행동($r=.2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특히 정서적 자율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외에도 분노억압과 비행행동이 적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또한 정서적 자율성이 클수록 분노억압, 분노표출, 비행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정서적 자율성 수준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및 비행행동의 차이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상·하 수준별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의 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 별로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그 변인들에 대해 ANOVA를 실시하여 <표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 상·하 수준별로 분노억압($F_{(1, 367)}=5.43$, $p<.05$), 분노표현($F_{(1, 367)}=6.57$, $p<.05$), 분노통제($F_{(1, 367)}=4.84$, $p<.05$),

비행행동($F_{(1, 367)}=10.91,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분노를 덜 억압하고 잘 표현, 통제하며 비행행동을 보다 덜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점수가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 비행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ANOVA검증

항 목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지승합	자유도	F
분노억압	의사소통 상 집단	16.62	2.53	35.71	2	5.43*
	의사소통 하 집단	17.29	3.00	2839.91	366	
	합 계	16.97	2.80	2875.61	368	
분노표현	의사소통 상 집단	14.75	3.22	183.68	2	6.57*
	의사소통 하 집단	15.75	4.17	5045.82	366	
	합 계	15.27	3.77	5229.50	368	
분노통제	의사소통 상 집단	18.86	4.22	5.89	2	4.84*
	의사소통 하 집단	17.91	4.12	6451.99	366	
	합 계	18.37	4.19	6457.88	368	
비행행동	의사소통 상 집단	30.43	9.24	2898.08	2	10.91**
	의사소통 하 집단	34.27	12.70	44129.31	366	
	합 계	32.41	11.30	47027.39	368	

+p < .05, ** p < .01

(2) 정서적 자율성 상·중·하 수준별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의 차이

정서적 자율성 상·중·하 수준별로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그 변인들에 대해 ANOVA를 실시하여 <표 3>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자율성 상·중·하 수준별로 분노표현($F_{(1, 367)}=6.66, p<.01$), 비행행동($F_{(1, 367)}=12.0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Duncan 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집단이 정서적 자율성이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보다 분노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정서적 자율성 상·중·하 수준별 분노표현방식, 비행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ANOVA 검증

항 목	집 단(N)	평 균	표준편차	자승합	자유도	F	Duncan
분노억압	자율성 상집단(133)	17.33	2.62				
	자율성 중집단(114)	16.96	3.16	2833.66	1		
	자율성 하집단(122)	16.58	2.58	41.95	367	2.30	
	합 계	16.97	2.80	2875.61	368		
분노표현	자율성 상집단(133)	16.17	3.96				
	자율성 중집단(114)	15.01	3.73	5137.56	1		
	자율성 하집단(122)	14.52	3.41	91.94	367	6.66*	하, 중 < 상
	합 계	15.26	3.77	5229.50	368		
분노통제	자율성 상집단(133)	18.20	3.82				
	자율성 중집단(114)	18.49	4.63	6373.80	1		
	자율성 하집단(122)	18.43	4.17	84.07	367	.17	
	합 계	18.37	4.19	6457.88	368		
비행행동	자율성 상집단(133)	35.35	11.75				
	자율성 중집단(114)	33.00	13.05	45669.78	1		
	자율성 하집단(122)	28.66	7.41	1357.61	367	12.02**	하 < 중, 상
	합 계	32.41	11.30	47027.39	368		

* $p < .01$, ** $p < .001$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과 정서적 자율성 수준에 따른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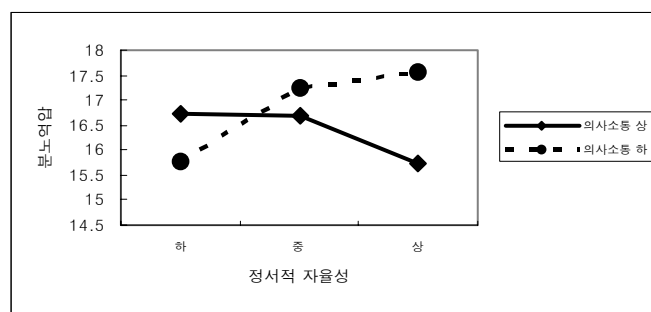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의 수준에 따라 정서적 자율성 성향별로 분노표현방식 및 비행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수준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고, 정서적 자율성 점수를 상위와 하

위 33%를 기준으로 하여 상·중·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2)/정서적 자율성(3)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통제, 비행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분노표출과 분노통제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정서적 자율성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91$, $df=1/363$, $n.s.$; $F=.54$, $df=1/363$, $n.s.$). 이에 분노억압 및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2)과 정서적 자율성(3)의 2원 변량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먼저, 분노억압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2)과 정서적 자율성(3)의 2원 변량분석결과를 <표 4> 및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정서적 자율성의
성향별 분노억압의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M	SD	N	변량원	SS	df	MS	F	
분노 억압	의사소통 수준 상집단	정서적자율성 상집단		15.75	1.88	16	의사소통 수준별(A)	11.94	1	11.94	1.56	
		정서적자율성 중집단		16.68	3.22	59						
		정서적자율성 전 체	하집단		16.72	2.13	104	정서적자율성 수준별(B)	20.68	2	10.34	1.35
					16.62	2.53	179					
	의사소통 수준 하집단	정서적자율성 상집단		17.55	2.64	117	A×B	55.76	2	27.88	3.65*	
		정서적자율성 중집단		17.25	3.09	55						오 차
		정서적자율성 전 체	하집단		15.78	4.39	18					
					17.29	3.00	190					

* $p<.05$



[그림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정서적 자율성 성향별 분노억압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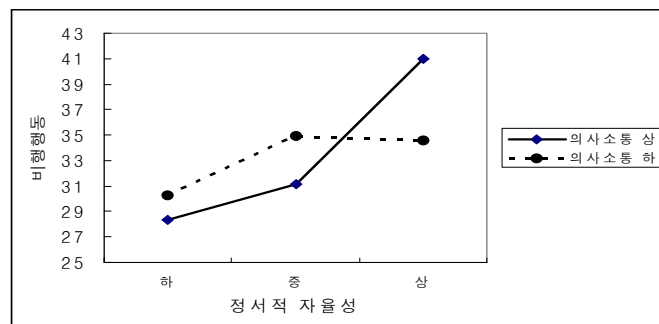
변량분석 결과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주효과($F=1.56$, $df=1/363$, n.s.)와 정서적 자율성의 주효과($F=1.35$, $df=1/363$,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분노억압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적 자율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3.65$, $df=1/363$, $p<.05$). 즉,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정서적 자율성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보다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분노억압을 보다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정서적 자율성이 작은 집단일 때에는 분노억압을 덜 하지만, 정서적 자율성이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은 분노억압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과 정서적 자율성 성향별로 비행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를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정서적 자율성
성향별 비행행동의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M	SD	N	변량원	SS	df	MS	F
비행 행동	의사소통 수준 상집단	정서적자율성 상집단	28.38	6.51	104	의사소통 수준별(A)	3.51	1	3.51	.03		
		정서적자율성 중집단	31.19	10.16	59							
	전 체	정서적자율성 하집단	41.00	13.13	16	정서적자율성 수준별(B)	2104.84	2	1052.42	8.87**		
		전 체	30.44	9.24	179							
	의사소통 수준 하집단	정서적자율성 상집단	34.57	11.40	117	A×B	1002.77	2	501.39	4.22*		
		정서적자율성 중집단	34.95	15.44	55	오차	43090.64	363	118.71			
		정서적자율성 하집단	30.28	11.44	18							
		전 체	34.27	12.70	190							

* $p<.05$, ** $p<.001$



[그림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정서적 자율성 성향별 비행행동의 평균

변량분석 결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적 자율성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F=8.87$, $df=1/363$, $p<.001$),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적 자율성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F=4.22$, $df=1/363$, $p<.05$).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자율성이 낮은 집단보다 중간인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하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정서적 자율성이 낮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비행행동을 보다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집단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행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과 정서적 자율성 수준에 따라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분노억압과 분노표현을 덜 하며 분노를 잘 통제하고, 비행행동을 보다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김인향, 1997; 노성향, 1994) 자녀의 문제행동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김양숙, 1995)와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모-자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분노를 억압하지 않고 표현, 통제하며 비행행동을 줄이는 등 자녀의 적응에 보다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 수준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에 비해 정서적 자율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분노표출을 보다 많이 하며, 정서적 자율성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이 비행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의 적응적 발달을 촉진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자율성은 오히려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Fuhrman &

Holmbeck, 1995; Garber & Little, 2001; Lamborn & Steinberg, 1993; Steinberg, 1986, 1987a, 1987b; Steinberg, Elmem, & Mounts, 198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높은 정서적 자율성'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정서적 자율성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이에 따른 적응 여부를 살펴보았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적 자율성 상·중·하 집단 가운데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집단은 분노표출과 비행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서적 자율성 수준이 중간인 집단조차도 낮은 집단에 비해 비행행동을 보다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욕구좌절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당혹감이나 정서적 혼란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최인경, 2001)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분노감을 표현할 수 있다. 예컨대, 화가 날 때 걸으러 드러내어 지나치게 과격하고 공격행동을 보인다면, 억눌린 분노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등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앞서서 부모의 통제부족이나 방임은 청소년들의 높은 정서적 자율성과 관련되는 반면에 부모의 과잉통제는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낮은 욕구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간수준이나 높은 수준의 정서적 자율성이 보다 많은 비행행동을 나타냄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율성 욕구가 적게 나타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교사나 상담자는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자율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수준 및 정서적 자율성 수준 별로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수준 및 정서적 자율성 수준 별로 분노억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정서적 자율성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보다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분노억압을 보다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정서적 자율성이 작은 집단일 때보다 정서적 자율성이 중간이거나 큰 집단일 경우에 분노억압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수준 및 정서적 자율성 수준 별로 비행행동에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정서적 자율성이 낮은 집단보다 중간인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비행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즉, 정서적 자율성이 낮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비행행동을 보다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집단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행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의 높고 낮은 수준에 따른 결과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줄인다는 선행연구(김인자, 1991; 민하영, 199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경우에 있어서 정서적 자율성이 큰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분노를 덜 억압한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노억압은 부적절한 분노의 표현양상으로 심리적, 신체적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하고자 하는 정서적인 자율성이 커질수록 내면의 분노감이 적절히 표현되기 보다는 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피하는 식의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경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큰 청소년들은 청소년 내부에 존재하는 분노감을 참는다거나 속으로만 상대방을 비판하는 식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 때보다는 높은 경우에 정서적 자율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분노억압 정도가 더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의 자율성 욕구가 매우 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분노를 억압하지 않는 대신에 이를 부적응적인 행동양상인 '비행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교사나 상담자는 청소년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도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정서적 자율성 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원활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비행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과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들의 분노표현 방식 및 비행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적 자율성에 대한 부 적응적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정서적 자율성의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 그 자체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율성 욕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율성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을 함께 고려하였고 그 결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정서적 자율성 간에 밀접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수준과 정서적 자율성 수준을 각각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행 및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분석 및 해석상의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Steinberg와 Silverberg(1986)에 의한 정서적 자율성 척도는 부모로부터의 건강하지 못한 형태의 분리(detachment)를 포함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Ryan & Lynch, 198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또 다른 정서적 자율성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부모와 청소년 자신의 욕구를 각각 평가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주관적인 평가만을 반영하였으므로 부모로부터의 자율성 정도의 평가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평가 시 객관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 시에 청소년 자신의 보고 뿐 아니라 부모의 보고 또한 고려하여 지적한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미경 (199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기표현과의 관계 -일반청소년, 입원청소년을 대상으로 - 간호학논문집. 7(1), PP.61-85.
- 김양숙 (199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 (1991).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연구. 인천시내 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향 (199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성향 (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보기, 강석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PP.268-291.
- 임소영(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PP.60-78.
-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자율성과 행동적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PP.755-770.
- 최인경 (200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황규숙 (1999). 부모 양육 태도와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en, J. P., Hauser, S. T., Eickholt, C., Bell, K. L., and O'Connor, T. G.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expressions of negative adolescent aff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535-552.

- Baldwin, A. L., Baldwin, C., and Cole, R. E. (1990). Stress-resistant families and stress resistant children.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uechterlein, S., and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ber, B. K., and Olsen, J. A. (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pp.287-315.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Cicchetti, D. and Rogosch, F. A. (2002).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adolesc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6-20.
- Eccles, J. S., Early, D., Frasier, K., Belansky, E., and McCarthy, Z. (1997). The relation of connection, regulation, and support for autonomy to adolescents'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pp.263-286.
- Fuhrman, T., and Holmbeck, G. N. (1995). A contextual-moderator analysis of emotional autonomy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pp.796-811.
- Garber, J., and Little, S. A. (2001). Autonomy and adjustment in young adolesc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 pp.355-371.
- Gottli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ker and Co. Press.
- Gonzales, N. A., Cause, A. M., Friedman, R. J., and Mason, C. A. (1996). Family, peer, and neighborhood influences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African-American adolescents: One-year prospective effec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pp.365-387.
- Havighurst, R. J.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McKay, NewYork.
- Juang, L. P., Lerner, J. V., McKinney, J. P., and Eye, A. (1999). The goodness of fit in autonomy timetable expectations between Asian-American lat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pp.1023-1048.

- Lamborn, S. D., and Steinberg, L. (1993). Emotional autonomy redux: Revisiting Ryan and Lynch. *Child Development*, Vol.64, pp.483-499.
- Mason, C. A., Cauce, A. M., Gonzales, N., and Hiraga, Y. (1996). Neither too sweet nor too sour: Problem peers, maternal control, and problem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67, pp.2115-2130.
- McElhancy, K. B., and Allen, J. P. (2001). Autonomy and adolescent social functio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risk, *Child Development*, Vol.72 No.1, pp.220-235.
- Novanco, R. W. (1986). Anger as a clinical and social problem. In R. J. Blanchard and D. C. Blanchard(Eds.), *Advances in the study of aggression*, (pp.1-67). New York: Academic Press.
- Pettit, G. S., and Laird, R. D. (2002).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al involvement and earlier child adjustment. In B.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tit, G., Laird, R., Dodge, K., Bates, J., and Criss,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72, pp.583-598.
- Ryan, R. M., and Lynch, J. H.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Vol.60, pp.340-356.
- Sharkin, B. S. (1988).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66 No.4, pp.361-365.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and Sydman, S. M.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Kassino(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 49-67). Tatlor and Francis.
- Steinberg, L. (1986). Latch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2, pp.433-439.
- Steinberg, L. (1987a). Familial factors in delinquenc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2, pp.255-268.

- Steinberg, L. (1987b). Single parents, step-parents, and the susceptibility of adolescents to antisocial peer pressure. *Child Developmental*, Vol.58, pp.269-275.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and G. R. Elliot(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teinberg, L., Elmen, J. D., and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60, pp.1424-1436.
- Steinberg, L., and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57, pp.841-851.
- Steerns, F. R. (1972). *Anger, Psychology, physiology, pathology*. Springfield, II: Charles C. Thomas.

ABSTRACT

The Effects of the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Level and Adolescent's Emotional Autonomy on Anger Expression Method and Juvenile Delinquency

Park, Hee-Suk* · Ha, Jung-Hee**

This study examined how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level and emotional autonomy had effect on anger expression method and juvenile delinquency on 368 adolescents. The significant results were revealed as follows. : First, higher level group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xpressed more anger-out, anger-in, juvenile delinquency, less anger control. Second, it was shown that anger-out, juvenile delinquency became different according to emotional autonomy level. Third, anger-in of sub-variable in anger expression, juvenile delinquency became prevalent according to the level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emotional autonomy level. The discussion follows about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Key Words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autonomy, juvenile delinquency, anger expression method

투고일 : 3월 30일, 심사일 : 6월 27일, 심사완료일 : 8월 14일

* Graduate Student in Chungbuk University

** Invited Professor in Chungbuk University